

사람이 있는 한 친절을 베풀 기회는 많다.

Wherever there is a human being, there is an opportunity for kindness. (Seneca)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세네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는 가끔 버스 정류장과 버스 안 또는 전철역이나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친절한 행위를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를 양보하는 분, 짐을 들어 주는 분, 길을 안내해 주는 분 등 다양한 친절을 베푸는 분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길거리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통 봉사를 하는 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괜히 저의 마음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오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것은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친절한 행위를 몸

으로 실천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친절한 분들을 목격할 수 있고 우리도 친절한 행위를 몸으로 실천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또는 슬프게 하는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밝아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의 실천입니다.